



## 슬이는 돌아올 거래

김하은, 유하정, 윤해연, 이영애, 이풍, 임정자, 전경남, 정재은 글 | 한수민 사진  
문학동네 | 초등 5학년 이상

## 활동1 **우린 그래**

❶ 이 책의 맨 앞에 실린 시「우린 그래」를 읽어 보아요. 그 뜻을 헤아리며 따라 써 보아요.

### 우린 그래

밤은 깜깜하지만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파도는

바람은

새들은

❷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실린 시「팽목바람길」을 낭독해 봅시다. 소리 내어 천천히 읽으면서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거예요.

❸ 이 책에 실린 작품들에는 누군가와 이별한 주인공,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들 곁에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되짚으면서 주인공의 곁을 지킨 짝은 누구이고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함께했는지를 떠올려 보아요. 더불어 내가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 「어떤 소리」

얼마 전 잃어버린 강아지 콩이를 애타게 찾는 주아

-주아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주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그 아이가 사는 집」

캠프장 근처 한 폐가에서 친구들을 기다리지만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아이

-아이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술이는 돌아올 거래」

달 체험 여행에 나섰다가 길을 잃은 술이

-술이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술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복자 할머니」

돌아오지 않는 손녀를 그리며 눈물을 콧코 눌러 참는 복자 할머니

-복자 할머니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복자 할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아빠의 냄새」

임시 보호자네 집에 머물며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차은이

-차은이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차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바다아이와 천천거북」

어느 날 바다 한복판에서 눈을 뜬 바다아이

-바다아이의 짝은 ( )이고 ( )을(를) 함께했습니다.

내가 바다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활동2

## 모두가 기다리는 집으로

### -「슬이는 돌아올 거래」-

슬이는 달 체험 여행에 나섰다가 길을 잃고 머나먼여행호에 탑승했어요.

아끼는 꼬꼬리 마이크를 우주공항에 남겨 둔 채, 원호를 통과해 태양계 밖으로 떠나게 된 슬이.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슬이는 시공간을 건너 마침내 지구로 돌아옵니다.

풍경은 훌쩍 달라졌지만 변함없이 슬이를 맞이하는 집으로,

숲길 바닷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황금돌탑이 있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온 슬이의 하루를 상상하면서 「슬이는 돌아올 거래」의 뒷이야기를 지어 봅시다.

슬이가 누군지 아니?

태양계, 지구, 한반도 끝의 진도에서 태어난 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말이야…….

기나긴 우주여행 끝에 마침내 지구, 한반도 끝의 진도, 슬이 마을에 다다랐어.



---

---

---

---

---

---

---

---

---

---

## 활동3 기억의 벽

『슬이는 돌아올 거래』의 겉표지를 벗기면 책 앞과 뒤로 작은 그림들이 빼곡합니다.

바로 팽목항 방파제에 새겨진 「세월호 기억의 벽」\*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사진을 남겼어요. 또 누군가는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아 그날의 헤어짐과 고통, 떠나간 이들의 얼굴, 남은 사람들의 뉘을 기억했지요.

여러분도 아래에 있는 ‘기억의 벽’을 채워 보세요. 그림을 그리든 시나 동화를 짓든 편지를 쓰든 다 괜찮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어요.

### 기억의 벽

\*‘기억의 벽’이란?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200일이 되었을 때, 어린이문학인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 개의 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타일을 들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22개 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글과 그림을 받아 모았고, 열띤 지지 속에 천 개를 훌쩍 넘는 4767명의 글과 그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타일로 2015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만들었습니다.